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6호 (루게 제23228호) 주제99 (2010)년 10월 3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에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에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관람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아버지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

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우동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창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대장 윤정린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는 념성창창 <조선의 행운>, 남성독창과 방창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념성2중창과 남성중창 <밝고 창창해>, 념성독창 <당을 노래 하노라>, 회고록선동 <백두산의 경고장>, 2인시와 바스기타독주 <돌파하라 최첨단을>, 념성민요독창과 방창 <내 조국은 어디 가나 노래넘치네>, 시이요기 <대를 이어 태양의 위성이

돌아>, 합창 <천체만세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시종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선군명장의 사랑의 품속에서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영원히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수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격동적인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양 힘있게 울려 퍼지는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무적의 대오로, 사상의 강군으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혁명의 중구적승리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몸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고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러 더치는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흥분의 분출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 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에술선전대원들이 투철한 수령관과 혁명관을 지니고 량만과 희열에 넘쳐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군대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고상한 도덕품모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에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니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절대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불사신의 용사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이 무적의 대군이 조국방선을 굳건히 사수하고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자랑찬 로력적성공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몇몇이 들어서자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가고있는 속에 천만군민에게 기쁨을 안겨주며 또 하나의 경사가 났다.

우리의 축포개발집단에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축포를 개발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축포개발자들이 완성한 세형의 축포는 선군승리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선 우리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우리 식으로 개발한것이다.

프로그램과 점화조종장치, 축포탄을 포함하는 현대적축포기술의 3대요소가 리상적으로 배합되고 색소도와 빛세기, 조형예술적형상에서 새로운 높이를 개척한 세 축포는 그 가지수만 해도 100여종에 달한다.

축포개발자들은 프로그램과 조종장치기술이 100% 우리것으로 되어있고 축포탄과 도화선, 화약에 이르기까지의 축포생산 전 과정이 우리 식으로 된 새로운 축포생산공정을 확립함으로써 역사적인 당대표자회에 이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환희와 열정을 북돋아주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계적으로 축포가 다양한 형태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속에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적요구와 생활감정에 맞는 높은 수준의 축포를 한시바삐 개발하여 평양시뿐만아니라 지방의 주요도시들에서도 축포를 쓸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 우리의 새 축포 개발 축포과학연구생산기관에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축포 완성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있는 축포개발자들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새로운 축포기술을 완성하여 성상에서 도입하였으며 여러번에 걸치는 시험 발사를 통하여 과학기술적성공을 림중하고 10월의 경축광장에 우리의 새 축포를 안고 들어서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붙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축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세기를 창조할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새 세기의 리상에 맞는 현대적인 축포를 세이기에 터쳐올리려는 조선로동당군의 불타는 충정의 빛나는 성공작이다.

진중의 축포를 쇠출리던 잊지 못할 그 날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위대한 어머니당을 따라 백전백승의 력사를 펼쳐온 우리 인민은 뜻깊은 경축의 날들에 축포를 터치며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여왔다.

축포는 나라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문제일뿐아니라 그 나라 인민의 문명의 상징으로 간주되고있다.

축포공업에서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도 있고 축포기술의 앞선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수십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있지만 축포공업의 오랜 력사와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룰수 있는 세형의 축포를 개발생산한것은 우리나라 축포기술의 비약적발전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대로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축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발자들에게 앞선 기술수준에 있는 축포관련본과 방대한 정보자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식의 새로운

축포를 개발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포리를 발휘하시였다.

결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연구하며 발사기의 수명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착상들을 많이 도입하며 단조로운 색깔과 형태에서 벗어나 빛과 불꽃과 음향이 조화를 이루게 할데 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개발자들이 연구목표를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새 축포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실험설비들, 측정설비들을 비롯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끈근하게 갖추어주시고 시험발사과정을 지도하시면서 절충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뜨거운 고무속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방대한 기술적문제들을 결사관철의 정신력으로 풀어나가면서 마지막 끝까지 성공의 영마루에 올라서게 되었다.

뜻깊은 경축의 날들에 내 조국의 하늘에서 다들아 보게 될 우리의 새 축포는 이미 보유하고있던 축포기술과 생산방법을 완전히 갱신한것으로서 축포의 조형예술화수준이 세계적경지에 오른것이다.

우리의 축포설계자들은 최첨단정복자로

서의 풍부한 정서와 높은 상상력을 가지고 축포의 사격속도와 축포탄의 불꽃구조, 공중파열시간과 파열폭을 비롯하여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한 축포설계를 구상 완성하였다.

모의발사와 실제발사의 완전일치를 확고히 담보하는 CNC화된 축포사격체계를 확립한것은 대단한 성과로 된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축포기술의 조형예술화라는 독창적인 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마음껏언제나 담아낼수 있는 다차원적인 축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급변하는 대기환경속에서도 발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 식의 훌륭한 발사조종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우리 식의 이 훌륭한 설계와 기술적내용들을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에 의거하면서도 우리 식의 화약제조기술에 의한 생산체제와 하나로 이어놓음으로써 축포의 공업화수준을 비정상히 높일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축포를 개발생산하는데 참가한 개발자들과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축포는 세계를 향하여 나간다

## 가배수로마감물막이 진행, 대상별공사 완공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당창건 65돐을 앞두고 1호발전소 연계가배수로마감물막이를 성과적으로 하였다.

발전기설건속공사와 발전설비조립, 수위변전설비조립, 물길굴, 취수탑, 조압수조공사들이 이미 끝났다. 각종 수문설치, 철관로조립과 배관을 포함한 대상공사들도 계속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서 불꽃을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합니다.> 9월 30일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의 각 리단들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가배수로를 완전히 막게 되는 환희의 시각을 앞두고 커다란 경적에 넘쳐 연계수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오전 10시 가배수로를 막자 연계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가배수로를 완전히 막음으로써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1호발전소가 빠른 시일안에 조기조업할수 있게 되었다.

1호발전소 조기조업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가배수로물막이와 대상별공사완공은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지난 5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장을 물소 찾아주시고 산형을 가르치시며 길길이 뻗어간 언계와 격전장을 방방게 하는 작업장들을 바라보시면서 청년건설자들이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방대한 작업량을 해제는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수훈장을 바쳐가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들격대원들은 <당에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대담하게 물리

치면서 물길굴건설과 방대한 량의 물동, 설비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여러 건축물건설을 불이 번쩍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현장연합지휘부에서는 승적령을 집중하여 1호발전소를 조기조업하기 위한 전투로 청년들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평양시와 각 도청년들격대원들, 8, 28청년들격대관리국 운수기동부대와 성, 중앙기관대의 청년들격대원들은 맑은 대상별공사물 제기일에 끝낼 결의를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 힘찬 투쟁을 벌였다.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현장연합지휘부의 긴밀한 련계밑에 1호발전소 조기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적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발전설비조립현투장에서도 날에날마다 력신이 창조되었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청진금속건

설현합기업소 로동계급을 비롯한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1호발전소 시운전보장을 위한 설비조립을 힘있게 다그치는 동시에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한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사업소의 로동계급은 선별장능력을 2배로 확장하고 벨트르베어를 비롯한 설비들의 보수정비를 최대한으로 다그쳤으며 현장에 파견된 대안자기계원 합기업소의 기술자들도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고 어렵고 복잡한 기술작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의 전체 일군들과 들격대원들은 연계가배수마감물막이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발전기조업을 비롯한 1호발전소 조기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투에 막자를 가하고있다. 특급기자 전철주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호금도동지 조선로동당대표단 접견

[베이징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호금도동지가 2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호금도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성상에서 최대경중치기 전하였다. 호금도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하셔드림것을 최대경중치기에 부락하였다. 호금도동지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중국방문은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중조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계신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창건 65돐을 앞두고 성과적으로 진행된 당대표자회에서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는 민족적자존심을 결코 수권변에 달하는 결사적인 실험을 통하여 새 축포를 연구 생산하는데 기여이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지식경제의 참다운 우월성을 궁지높이 확증하였다.

새로 개발된 한발한발의 축포탄에는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유훈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새 세기의 미감에 맞는 훌륭한 축포를 선물로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실험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새로운 축포를 완성하는 길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유명무명 위훈자들의 남모르는 투쟁의 자욱이 깃들여있다.

최첨단을 돌파하여 21세기 새 축포를 만들어낸 용감하고 지혜로운 축포개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천가지, 만가지 행복을 꽃피워주시길 끝없는 사랑으로 축포공업의 새 력사를 안아오신 위대한 스승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항도지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며 더 높이 비약할 신심과 결의에 넘쳐있다.

세계적수준에서 완성된 우리의 새 축포가 개발되어 조국의 하늘에 터져오르게 된것은 수령, 장군복속에 마련된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지혜와 손으로 만들어낸 새 축포로 경축하며 광활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선군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궁지높이 확증해준다.

본사기자 송미란

게,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한 문제들에서 합의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중조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조선과의 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며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중국공산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우리는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보인 큰 성과를 거두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택동동지과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리라는것을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겠다고 하면서 호금도동지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와 생우관

# 위대한 당의 향도 따라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광활한 미래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성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그 무궁한 미래에 대하여 깊이 절감하게 하는 당창건 65돐!

뜻깊은 이날이 다가올수록 천만국민은 어머니 우리 당의 고티아와 내 나라, 내 조국의 빛나는 영예에 대하여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천재적이지와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덕담과 당대 배짱을 지니신 걸출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영광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환희와 긍지가 하늘땅에 차넘친다.

희세의 위인, 세련된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당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것은 우리 인민의 의로운 마음이며 민족의 영원한 밝은 미래가 담보된 경사중의 경사가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운지를 안으시고 당중앙위원회청사서 거룩한 발자취를 아로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소리가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승결과 더불어 풍풍 들려온다.

당의 령도 따라 이 땅에 거머잡고 강성대국을 안아올 천만국민의 한결같은 심장의 웨침을 뜨겁게 호응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누리에 떨쳐가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불멸의 그 영광 우리를 수놓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김일성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루어졌습니니다.

김일성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변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 혁명하는 당의 위대성은 곧 령도자의 위대성이다.

세계가 칭송하는 위대한 령도자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모시는 여기에 혁명적당의 백승의 위력이 있고 나라의 영원한 번영이 있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다니는 것은 우리 혁명의 가장 귀중한 력사적진리이다.

령도자를 잘못 만났듯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집권당들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좌절된 비극적인 사태는 위대한 령도자를 당의 수위에 모시는가 모시지 못하는가 하는데 당과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이 좌우가 달려있다는것을 혁명의 철리로 확고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존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고 사회주의 위업을 출기차게 전진시켜나가며 자기의 붉은 기록에 승리를 아로새겨나가 고있다는 것을 우리 위대한 령도자가 고고한 령도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계시기때문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강화발전과 계승완성을 위한 길에 불멸의 공적을 쌓으신 불세출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호모심과 그이만을 따르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넘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불타오르고있다.

수심성상 우리 당을 령도해오시는 나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누구도 따르지 못할 해박한 지식, 비범한 예지, 특출한 조직적수완으로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우리 혁명이 출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사상정신적기초를 마련하시였으며 사회주의수호운을 진두에서 승리를 이룩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반만민족사에 처음으로 있는 대국상이후 우리 장군님께서 전면적으로 확립하신 선군정치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그대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수위에 하루빨리 모시고 새로운 력사적

진군길을 다그치려는것이 진당과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고 한결같은 의지였다. 간절한 소망을 담은 편지가 매일 같이 당중앙위원회로 보내져왔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진당, 진군, 전민의 그처럼 뜨거운 열망을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어두시고 오로지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심혈과 로고를 쏟았이 바쳐가시였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싸야 한다고,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명생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헌바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드시고 류체없는 선군정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걸음 깎아내려 버리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신 걸출한 선군령장의 그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날것이다.

우리 나라를 주시하던 세력의 많은 정세, 사회제인사들이 조선의 현실을 두고 저마다 대후과 경란의 목소리를 떠뜨렸다.

세계가 그처럼 우러르는 걸출한 위인을 어찌 우리 군대와 인민이 운명의 어버이로 받들고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지 않을수 있었는가.

오늘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천만 국민이 자그마한 동요도 모르고 오직 승리를 확신하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창조의 력사를 안아오는 비결은 다름아닌 선군태양으로 만민의 청송을 받드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의 진두에 계시기때문이다.

참으로 불멸불패의 혁명활동으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로속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인민을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닌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였으며 이 땅에 김일성민족의 통성변

영의 새시대를 펼쳐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얼마전 정력적인 대의활동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또다시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볼수록 우리모두는 다시금 심장에 새겨졌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불세출의 선군령장,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어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으며 혁명적력판을 가지고 이 땅에 민족민단의 번영이 담보된 환한 현실을 안아오고야말 것이라는데를.

세월이 흐르고 년대가 바뀔수록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들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은 더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 따라 전진해나갈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위대한 걸출한 수령의 령도가 있어야 당과 조국, 인민의 운명이 걸결히 수호되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들어 사회주의건설에 걸결적전환을 이룩할수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걸결하게 한 격동적인 나날이었다.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의 혁명적성격과 불패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며, 강성대국건설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변천변승을 이룩한것, 사회주의수호운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것... 필승불패의 정치이며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금인 위대한 선군정치를 더욱 확고히 실현해나가기위해 새 조국을 누리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그이께 만민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원로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행운을 영원히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성스러운 길을 더욱 억척같이 걸어갈것이다.

본사기자 계 성 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추대!

격동적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기쁨이 그대로 환호성이 되고 축원의 꽃물결이 되어 이 땅에 뜨겁게 굽어쳐들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이렇듯 전체 인민이 마음속 생각도 신념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자기 령도자를 심장으로 받들며 따르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이며 주체조선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부터 이룩되어 장구한 기간 계승되고 발전해온 우리의 일심단결에는 하나의 전리가 관통되어있다.

그것은 단결의 계승이 곧 승리의 계승이라는것이다.

우리 당의 단결과 승리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고. 리. 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세 시대 청년혁명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이룩하였던 통일단결을 생각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내가 김혁, 차광수, 최창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것은 그들이 나에게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라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혁명에서 령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력사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들의 첫째가는 공적이 바로 거기였다. 지도자를 배서우고 그 지도자를 핵으로 통일단결한 새 시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넋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였다라고 감동깊이 쓰시였다.

조선혁명의 1세대인 새 시대 청년혁명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이룩한 통일단결이야말로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의 담보였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튼튼한 초석이였다.

이 위대한 단결의 전통을 이어 우리 혁명의 2세대는 단결의 힘으로 존엄했던 조국해방전쟁에서도, 강고했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수령의 위대성에 따라 단결의 위대성도 결정되는것이다.

일찍이 자신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하였다고 단결의 철학을 내놓으신 자신의 혁명철학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

별써 오라에게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단결의 철학을 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60년대 당대표자회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당을 강화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꾸리는데라고 하시면서 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적동일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하나의 선군혁명동지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늘 선군혁명단결이라는 최고의 높이에 서 더욱 굳건해졌다.

혁명의 로세대로부터 새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의 새 력사를 펼쳐가는 오늘날의 북한 현실은 바로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내 조국의 참모습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단결이자 승리이라는 진리를 심장에 새기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에 거머잡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 필승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시던 나날에

귀중한 가르치심

주제 63 (1974)년 2월 13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 수뇌부에 높이 추대하시였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뜻깊은 그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업에 열중하고 계시였다. 밤이 깊도록 사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일군들은 그이를 당의 수위에 높이

주제 67 (1978)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국주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조로말라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고있는 때에 소집된 회의인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느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회의장에 들어서시어 장제를 일별하시고 나서 일군들에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당의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모든 오늘의 영광이 있어 우리 혁명과 조국의 미래가 찬란하다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끝없는 감격이 휩싸여 가슴들 맥이는 일군들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우리모두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들어모시고 더 많은 일을 하고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려는 동지가 없

전략적구호로 내세우시며

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우리 식대로 살아가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전략적구호입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간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이든, 충실한 전우들이 없이는 그 어떤 지도자도 큰 위업을 이룩할수 없다고, 나는 동무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일을 잘하리라 믿는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정사로 생각하시며 수령님께선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확고한 결심을 피력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립 정 호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업적은 영원히 빛난다. 본사기자 립학택 찍음

##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은 오늘 자기 발전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끝없이 밝은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지난 9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것은 수심성상 주체의 혁명적정신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천만국민의 다함없는 호모와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이다.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고전적로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79 (1990)년 10월 3일에 발표하신 이 작은 우리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장군님의 철학의 의지가 빛날치는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을 강화하고 높이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건설은 혁명에서 근본문제로서 나옵니다.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심장인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당건설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시 변화되는 정세의 추이를 통찰하시고 이 로작을 발표하시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시어, 향도자 리정표를 마련해주시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 사관파의 사범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명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들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들이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20년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그 존엄과 권위가 힘있게 떨쳐지게 되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정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밑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끓임없는 번혁과 기적이 일어났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체험하면서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적순결체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위대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자주시대의 앞길을 확고히 밝히는 위대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의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주체사상적요구대로만 해나가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을 령도하시는데서 우리 당을 위하여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으로 기초한 사상적순결체로 튼튼히 꾸리는데 신사적인 힘을 넣어오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단일적인 체로로 집대성하시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전당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시고

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불멸의 원천이며 조직성과 규율성은 당의 생명이다.

일찍이 수령의 지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수령중심론에 기초한 주체적인 당건설원칙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심성상에 걸친 전당에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펼쳐서 확립하시고 당리론의 조직사상적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오시였다.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오직 수령이라는 확고부동한 립장을 지니시고 전당에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호하시어 사관파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빛내이시는데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학의 의지가 새겨져있다.

오늘 우리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고동치는 사상적순결체로 위용을 떨치고있다. 전체 당원들이 주체적의 붉은 피로 심장을 끓이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전진하는것이 우리 당의 전통모습이다.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절대적진리로 삼고 그 지침 따라 나아가기에 우리 당은 앞으로 더욱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자로 끝없이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오직 하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을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철결같이 뭉친 불패의 전투대오

승 조선로동당이다. 이번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전체 당원들이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사상적순결체로, 동지적으로 더욱 강하게 결속되고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당의 혁명적전대본이 될것임이 파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를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가장 공명한 혁명적지반에서 승승장구는 혁명적당은 세상에 우리 당밖에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당건설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을 선군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사상적로속하고 세련된 당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20년이라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선군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뿌리를 두고있는 선군사상을 인민대중의 자주적당으로 향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당으로, 만능의 보금으로 내세우신것은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의 혁명로선과 정치방식이로부터 당조직들의 투쟁적공능이 르기까지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이 선군혁명위업수행을 위한데로 확고히 지향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선군의 가치밀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는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최정예의 전위대오가 바로 백전백

과로 군대를 핵심, 기둥으로 하여 새로운 대고조선군속도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선군혁명로선을 새 세기의 가장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자주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수를 내리코는 혁명적당이 조선로동당이다. 선군시대의 백전백승의 위대한 혁명로선과 정치방식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에 향도해나가고있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다.

오늘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필승의 기상은 천만국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전보적인류의 자주와 정의의 표대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짓부셔 선군조선을 강력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우리 당의 강한 자주적대와 필승의 위력에 대하여는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백두의 천출정령을 높이 모시고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을 비상히 강화된 우리 당은 영원히 백승을 펼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철결같이 뭉친 천만국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김 정 수

리고 군대를 핵심, 기둥으로 하여 새로운 대고조선군속도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선군혁명로선을 새 세기의 가장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자주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수를 내리코는 혁명적당이 조선로동당이다. 선군시대의 백전백승의 위대한 혁명로선과 정치방식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에 향도해나가고있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다.

오늘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필승의 기상은 천만국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전보적인류의 자주와 정의의 표대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짓부셔 선군조선을 강력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우리 당의 강한 자주적대와 필승의 위력에 대하여는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백두의 천출정령을 높이 모시고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을 비상히 강화된 우리 당은 영원히 백승을 펼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철결같이 뭉친 천만국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김 정 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

## 강원도, 함경북도 경축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강원도, 함경북도 경축대회가 2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성동지의 추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추상화가 대회장들에 모셔져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를 비롯한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에 참가하였다.

### 강원도에서

강원도경축대회에서는 신영훈 도당위원회 비서의 연설이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문천환방 지배인 김진규,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원산시 송천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 장송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원산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정운,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원산수산대학 학장 리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정

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한한 경모심의 분출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진과 시련을 파고 헤쳐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신대 대하여 인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를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위에 강성민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 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상징이시고 혁명승리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강원도경축대회장 특파기자 신천일 찍음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하며 당의 명도따라 부강조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선군의 기치높이 과감한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라

###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조선은 결집하면 한다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결사판정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다그치며 광물생산을 적극 늘일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에서 내내 예비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고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것을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가을걷이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살림집건설과 국토관리, 도시경영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자랑찬 로력적성들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멋있게 열어

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

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경축대회에서는 박찬원 도당위원회 비서의 연설이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계철협동농장 이사장 김철현,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원산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정운,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원산수산대학 학장 리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정

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한한 경모심의 분출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진과 시련을 파고 헤쳐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신대 대하여 인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를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위에 강성민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 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상징이시고 혁명승리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진과 시련을 파고 헤쳐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신대 대하여 인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이 늘어나고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선이 힘있게 추진되어 생산활성화의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제철, 제강소들에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절명하며 무산판설합기기업소에서는 제철, 윤반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더 많은 철강광을 생산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야랑철발전소 2단계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석탄공업부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인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업부에서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현대화를 다그쳐 갖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명도따라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축대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조선중앙통신】

## 영광의 땅에 내려치는 공격전의 기상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

뜻깊은 10월을 맞이한 영광의 땅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 공격전의 기상이 내려친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제철, 제강소들에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절명하며 무산판설합기기업소에서는 제철, 윤반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더 많은 철강광을 생산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야랑철발전소 2단계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석탄공업부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인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업부에서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현대화를 다그쳐 갖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경축대회에서는 박찬원 도당위원회 비서의 연설이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계철협동농장 이사장 김철현,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원산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정운,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원산수산대학 학장 리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정

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한한 경모심의 분출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진과 시련을 파고 헤쳐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신대 대하여 인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를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위에 강성민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 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상징이시고 혁명승리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진과 시련을 파고 헤쳐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신대 대하여 인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를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위에 강성민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 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상징이시고 혁명승리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붉은기를 높이 들고 현대적인 농기계들의 발동소리에 발걸음을 맞추며 포전길에 나선 미곡리사람들의 심장은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져있다.

농장일꾼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어 앞장에서 내달리자 모든 작업반초급일꾼들이 그 뒤를 따라나섰다.

농산제 1작업반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앞장에 섰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면서도 그날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셨던 그날의 영광을 안고 벼베기와 단풍이세우기를 운반에 앞세워나가고있는 청년작업반 초급일꾼들과 청년들의 열정과 기백은 또 얼마나 드높은것인가.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10월의 대축전장을 남편처럼 들어서려는 뜨거운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트랙트르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는 농산제 3, 5작업반의 운전수들, 기계정비를 간직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는 벼종합수확기운전공들... 미곡벌에 높이 올라가는 벼장원들이 한알이라도 허실세라 비속을 뚫고나가는 농장원들, 열기던 호소로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선동원들...

그것은 그대로 포연탄우를 헤치고 돌격로를 열어나간 1950년대 영웅선사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그리하여 작업반에서는 비례에 잠김없이 한 벼를 모두 지켜

라 여념이 없는 농장원들... 다음과같은 위한다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나쁜 그들의 마음을 알고싶어 한 여성농장원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는 어중어중하며 조용히 말하는것이였다.

《작업반원들모두가 승리지 않는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를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위에 강성민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 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벼를 잘 거머들이고 낱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남세작업반에 들었던 어느날 농산제 2작업반에 나갔던 리양일군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로동원들이 벼를 베는 포전에 들어서서 흥분 비사들을 모으고 벼단무지들이 잘 마르도록 뒤집어놓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벼가울이 한창이던 어느날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눈길은 금방 벼어 포전에 늪허놓은 벼무지에 쏠려갔다. 작업반장이 남편처럼 벼포기를 가슴안고

다. 그는 어제저녁 수리해놓은 벼종합수확기가 격정되어 시간을 쪼개가며 새로 만든 예비부속품을 가지고 포전길에 나선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이었다. 그가 운전공, 수리공들과 함께 예비부속품을 같이맞추고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고있을 때 포전에 달려나온 작업반원들은 감동

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남세작업반에서 로력조작을 짜고들며 당면한 남세밭가꾸기를 집적으로 하면서도 농산작업반들의 가을걷이를 적극 도와주자 파수, 축산, 기계화작업반원들이 농산작업반을 하나씩 맡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열렬히 나서고 있다.

이었다. 등을 떠미는 그에게 로동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이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도록 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로동원들은 농장이 당장전 65畝를 갖는 뜻깊은 올해 가을걷이전투에서 온 나라 농촌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데서 밀거름이 되고싶습니...》

바로 그제서였다. 10월의 대축전장을 멋있게 열어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

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경축대회에서는 박찬원 도당위원회 비서의 연설이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계철협동농장 이사장 김철현,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원산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정운,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원산수산대학 학장 리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정

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한한 경모심의 분출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진과 시련을 파고 헤쳐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신대 대하여 인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를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위에 강성민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 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상징이시고 혁명승리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진과 시련을 파고 헤쳐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신대 대하여 인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를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위에 강성민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 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상징이시고 혁명승리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 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력사의 온갖 진과 시련을 파고 헤쳐서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인도신대 대하여 인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초강대국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백승떨치는 존엄높은 당

##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스페리에, 프랑스, 방글라데슈, 로씨야에서 집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9월 25일과 27일에 진행되었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승리와 영광의 한길은 걸은 조선로동당의 자랑한 로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에는 스페리에의 공산당, 스페리에조선친선협회, 스웨리에주체사상연구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로씨야 쾨펜스프시사, 오보르나 77회사의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평양의 밤》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스트롬은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전쟁과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 편이든 자연재해속에서도 평화와 독립, 복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위하여 이끌어왔으며 언제나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 나라에서 진행

작성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의 창조적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전략과 전술을 세워나갔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을 끝없이 신뢰하고있으며 그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대표위원장 앙드레 오브리는 집회에서 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왔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부부하는것을 당황들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집대성한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총비서각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나라

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위원장 엠. 칼를 후다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인류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혁명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성상은 인민을 이끌어 세기적변혁을 창조해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이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스웨리에, 프랑스에서 진행된 집회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재현되었다.

취직과 압박, 빈궁과 무권리에 시달리던 인민대중을 의식하여 조지화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제로 되게 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조직사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한 사회를 하나의 사회정치적생체로 만들었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사회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인민대중은 당의 두리에 한 마음으로 뭉쳐있으며 철필같이 뭉쳐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이끌고 있다.

블레젠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올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백승만을 떨쳐온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실제함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을 따르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며 당의 령도아래로 사회주의위업의 필승의 담보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제두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조선의 어머니》

로씨야신문 《빠트리오트》 제 35호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군복을 입으신 김정숙동지의 영상과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이러한 경우에는 장군님께서 함께 계신 사진을 편집하여 실었다. 신문은 김정숙동지께서는 1917년 12월 24일에 탄생하여 어린시절부터 조국의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이께서는 1932년에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에 가입하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동단원들에게 조국에 대하여, 조선의 력사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조국에 대한 충을 배워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동지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동지들을 위해서 모든것을 다하시었다.

백두산일영에서 탄생하신

김정일동지께서도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품성을 이어받으셨다.

계속하여 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총정신과 세계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이께서 자신의 머리칼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발에 깔아드린 사실을 감동깊게 서술하였다.

신문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인민속에서 들어가서 반일선전사업을 능란하게 진행하시고 그 어떤 전류임무도 훌륭히 수행하셨으며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혁명적작업을 탐독하시고 조국이 해방될 다음에는 새 조국건설에 헌신하시면서 혁명유자녀들을 돌보아주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신 조선민중학생동맹사업에 모든 심혈을 다 바치셨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녀성들앞에서 연설을 하시었으며 그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교양하셨다.

그이께서는 특권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검소하고 겸박하게 생활하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승용차나 호위성원도 없이 공장과 농촌, 교육기관과 평범한 가정속으로 들어가시어 자신의 머리칼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실을 더 잘 알도록 함께 메리고다니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면서도 자신의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신문은 김정숙동지께서는 1949년 9월 22일 예외적으로 서거하시었지만 그이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끝으로 김정숙동지는 조선민중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의 친근한 진수, 믿음직한 방조자, 충직한 동행자이셨다고 하면서 인민의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부모님들이 지니신 위대한 천품을 그대로 넘겨주셨다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고 칭송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 기념 불레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메리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에서 불레전 제46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을 모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창조자》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블레전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어떤 통과와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믿음불레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 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제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세월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믿음불레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 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제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세월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믿음불레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 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제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세월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믿음불레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 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제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세월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믿음불레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 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제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세월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믿음불레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 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제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세월

시련속에서도 인민들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믿음불레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 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제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세월

## 배루에서 회고모임 진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1돐에 즈음하여 배루 리에서 9월 23일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배루인민녀성동맹, 조선의 자주적혁명투쟁 지지 배루위원회 회원들, 사회단체,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으며 이날 회고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배루인민녀성동맹 총서기 루드 안호체나는 동맹의 명예회원으로 높이 모신 김정숙녀사의 위대한 생애

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 녀성들의 참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세계 모든 녀성들의 귀감이다.

녀사께서는 오늘날 녀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

조선의 자주적혁명투쟁 지지 배루위원회 서기장 펠릭스 페르난데스 토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히 추억

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 녀성들의 참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세계 모든 녀성들의 귀감이다.

녀사께서는 오늘날 녀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

조선의 자주적혁명투쟁 지지 배루위원회 서기장 펠릭스 페르난데스 토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히 추억

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 녀성들의 참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세계 모든 녀성들의 귀감이다.

녀사께서는 오늘날 녀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

조선의 자주적혁명투쟁 지지 배루위원회 서기장 펠릭스 페르난데스 토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히 추억

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 녀성들의 참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세계 모든 녀성들의 귀감이다.

녀사께서는 오늘날 녀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

조선의 자주적혁명투쟁 지지 배루위원회 서기장 펠릭스 페르난데스 토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히 추억

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 녀성들의 참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세계 모든 녀성들의 귀감이다.

녀사께서는 오늘날 녀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

조선의 자주적혁명투쟁 지지 배루위원회 서기장 펠릭스 페르난데스 토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히 추억

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 녀성들의 참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세계 모든 녀성들의 귀감이다.

녀사께서는 오늘날 녀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

조선의 자주적혁명투쟁 지지 배루위원회 서기장 펠릭스 페르난데스 토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히 추억

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 녀성들의 참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세계 모든 녀성들의 귀감이다.

녀사께서는 오늘날 녀성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 계신다.

조선의 자주적혁명투쟁 지지 배루위원회 서기장 펠릭스 페르난데스 토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히 추억

# 중국에서 공화국창건 61돐 경축

【베이징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중화인민공화국창건 61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1일 호금도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수도의 각계총 대표들과 함께 천안문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9월 30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를 연회가

있었다.

연회에서는 온가보 국무원총리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올해는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라고 하면서 지난 5년동안 온갖 위험과 도전에 대처함으로써 나라의 면모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은 과학적발전을

확고부동하게 추동하고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고 대만동포들과 함께 광인민의 평화적발전을 추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위업을 실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의 각 지방도시들과 홍콩, 마카오에서도 국기게양식,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있었다.

# 이란핵문제의 외교적해결 주장

튀르키예대통령 아브둘라흐 굴이 9월 21일 이란핵문제를 외교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란핵계획의 평화적성격을 대변하는것을 배격

하면서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추진한다고 경고하며 말하였다.

튀르키예정부는 중동지역이 핵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되기를 바란다

# 자본주의경제체계의 해독성 폭로

유엔주재 베네수엘라상임대표가 9월 21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본주의경제체계의 해독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자본주의경제체계가 세계에 대한 지배력과 불공정한 자본축적만을 노렸으므로 그것은 생존과 발전에 관한 사람

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에 부정적영향을 주고있다고 비판하였다.

발전된 나라들 자체가 현재 자본주의위기가 몰아온 파국적인 후파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유엔총회에서 7월에 공업제품수출을 그 전달보다 2.4% 감소시켰다.

프랑스의 파리를 비롯한 각지에서 9월 23일 당국의 그릇된 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에는 300만명의 각계층 대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주민들의 생활 처치를 악화시키게 될 새로운

#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미시위

▲불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구미봉쇄정책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비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정책을 집요하게 매어달려온데 대해 규탄하고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비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정책을 집요하게 매어달려온데 대해 규탄하고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비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정책을 집요하게 매어달려온데 대해 규탄하고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비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정책을 집요하게 매어달려온데 대해 규탄하고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비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정책을 집요하게 매어달려온데 대해 규탄하고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비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정책을 집요하게 매어달려온데 대해 규탄하고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비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정책을 집요하게 매어달려온데 대해 규탄하고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이 쿠비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정책을 집요하게 매어달려온데 대해 규탄하고

# 단편 논감고 아웅한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미집권당이 뉴욕의 어느 한 공장 로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장연설을 하면서 《나라의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뉘르리를 쳤다. 뒤이어 미제부장관이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 경제회의에서 자기 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있다.》느니 뉘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하지만 실지로 미국경제가 금융위지에서 벗어나 회복되고있는가, 세계인들은 물론 미국인들조차도 이것을 부인하고있다.

미국금융위기의 발전지로 되었던 주력시장은 아직도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올해 6월말현재 미국의 가정들의 채무액은 11조 7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액을 기록하고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거나 경영난에 시달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자수는 달마다 늘어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재정, 무역 쌍둥이적자는 시간을 다뤄며 농성이처럼 불어나 미국경제의 승풍을 조이고있다.

이런데도 미국집권자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나라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다.》느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느니 뉘니 하고 헛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논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미국집권자들은 저들의 정책집행과 머지않아 있게 될 국외중간선에서 자기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표를 높여려고 이저러거짓말을 밥먹듯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뉘르리한 말을 연이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우울과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미국집권자들의 논감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이 통렬히 만무하다.

미국집권자들은 저들의 정책집행과 머지않아 있게 될 국외중간선에서 자기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표를 높여려고 이저러거짓말을 밥먹듯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뉘르리한 말을 연이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우울과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미국집권자들의 논감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이 통렬히 만무하다.

미국집권자들은 저들의 정책집행과 머지않아 있게 될 국외중간선에서 자기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표를 높여려고 이저러거짓말을 밥먹듯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뉘르리한 말을 연이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우울과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미국집권자들의 논감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이 통렬히 만무하다.

미국집권자들은 저들의 정책집행과 머지않아 있게 될 국외중간선에서 자기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표를 높여려고 이저러거짓말을 밥먹듯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뉘르리한 말을 연이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우울과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미국집권자들의 논감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이 통렬히 만무하다.

미국집권자들은 저들의 정책집행과 머지않아 있게 될 국외중간선에서 자기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표를 높여려고 이저러거짓말을 밥먹듯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뉘르리한 말을 연이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우울과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미국집권자들의 논감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이 통렬히 만무하다.

미국집권자들은 저들의 정책집행과 머지않아 있게 될 국외중간선에서 자기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표를 높여려고 이저러거짓말을 밥먹듯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뉘르리한 말을 연이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우울과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미국집권자들의 논감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이 통렬히 만무하다.

미국집권자들은 저들의 정책집행과 머지않아 있게 될 국외중간선에서 자기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표를 높여려고 이저러거짓말을 밥먹듯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뉘르리한 말을 연이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우울과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미국집권자들의 논감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이 통렬히 만무하다.

미국집권자들은 저들의 정책집행과 머지않아 있게 될 국외중간선에서 자기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표를 높여려고 이저러거짓말을 밥먹듯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뉘르리한 말을 연이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앞날에 대한 우울과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미국집권자들의 논감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이 통렬히 만무하다.

# 용납될수 없는 국제법유린행위

—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레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단행을 매 일과 같이 강행하고있다.

9월 27일 미군은 북부와 지리산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띄우며 미사일공격을 가함으로써 4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미군은 9월 29일에도 북부와지리산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띄우며 미사일공격을

가하였다. 그러하여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단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9월 27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와 웨딘시에 쳐들어와 폭압소동을 벌리는데 하여 7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하였다. 그러하여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단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9월 27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와 웨딘시에 쳐들어와 폭압소동을 벌리는데 하여 7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하였다. 그러하여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단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9월 27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와 웨딘시에 쳐들어와 폭압소동을 벌리는데 하여 7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하였다. 그러하여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단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9월 27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와 웨딘시에 쳐들어와 폭압소동을 벌리는데 하여 7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하였다. 그러하여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단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9월 27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와 웨딘시에 쳐들어와 폭압소동을 벌리는데 하여 7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하였다. 그러하여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단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9월 27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와 웨딘시에 쳐들어와 폭압소동을 벌리는데 하여 7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하였다. 그러하여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단행을 계속 매어달리고있다.

9월 27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와 웨딘시에 쳐들어와 폭압소동을 벌리는데 하여 7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